

2000년 남북 경협 기상도

김명식 / 한국산업은행 북한·중국팀장

머리말

가 북한 경제 교류 협력은 최근 들어 양적인 확산과 질적인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1999년의 교역 규모는 3억 3,3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위탁 가공은 점진적으로 다양해지면서 품목도 고부가가치화 추세에 있다. 투자 협력도 현대의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 전개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본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간 협업을 교역, 위탁 가공과 투자 협력으로 대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경협에 대한 전망에 따른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활성화 방안은 가능한 생략하고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협에 대한 전망과 업종별 대북 진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비중을 크게 두었다.

부문별 동향

·남북 교역

1999년 들어 남북한간 반출입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3억 3,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이 증가하고, 위탁 가공 교역이 확대되는 등 실질 교역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북 지원 및 경협 사업 추진에 따른 비거래성 물자 반출도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비거래성 물자 반출은 대북 무상 지원, KEDO 관련 중유 공급, 경수로 건설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협력 사업 물자의 반출이 해당되며 그 규모는 1999년에 1억 4,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남북 교역에 참가한 업체와 품목은 각각 581 개 업체와 525 개 품목으로서 1989년의 30 개 업체와 26 개 품목에 비하면 양적으로 급속한 진전을 이룩하였다.¹⁾ 주요 반출 품목으로는 비금속 광물, 화학 재료, 섬유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0, 2), 「북한뉴스레터」, p. 151.

류,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와 철강금속 제품 등이다. 주요 반입 품목으로는 농림수산품이 약 70.6%를, 철강금속 제품이 약 23.8%를 차지할 정도로 품목이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북한 교역에서 남한이 명목상으로는 9,0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교역은 북한이 5,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위탁 가공

1999년의 위탁 가공은 약 1억 달러로서 1998년의 7,100만 달러에 비하면 약 40.3%가 증가하였다. 위탁 가공도 과거의 섬유나 의류 등 북한의 단순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에서 최근에는 TV를 비롯하여 유선 전화, 라디오 카세트와 PCB²⁾ 등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업종이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위탁 가공을 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로는 의류의 서전어패럴, 컴퓨터용 15, 17인치 모니터를 생산하는 IMRI, 마이크 등 음향 기기를 생산하는 극동음향,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성남전자, TV의 LG전자 등이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컬러 TV 2만 대, 유선 전화 24만 대, 라디오 카세

트 12만 대 등 가전 제품을 평양에서 생산할 예정으로 위탁 가공 관련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하고 있다.³⁾

투자 협력

대북 투자 사업을 가장 적극적이고 대규모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는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발을 시작한 이래 1999년 11월에는 온천장을 개장하였다. 또한 현대는 이를 발판으로 북한과 서해안에 대규모의 전용 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또한 평양에 종합체육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의 활발한 대북 투자에는 규모나 자금 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하지만 금강산 국제그룹의 평화자동차가 남포에서 1단계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그룹은 2006년까지 연간 1만 대 규모의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를 조립·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3단계에 걸쳐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⁴⁾ 한편, 태창은 장전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월 4,000 톤의 생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동원식품을 통해 국내에 시판할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도 30여 개의 국내 업체들이 북한과의 경험을 추진하고 있다.

2) PCB 위탁 가공 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은행(2000. 1), "국내 중소기업의 대북한 진출사례 연구", 「조사월보」 참조.

3) 대한무역자투자진흥공사(2000. 2), 「북한뉴스레터」, p. 15.

4) 대한무역자투자진흥공사(2000. 2), 「북한뉴스레터」, p. 15.

2000년 경협 전망

이상에서 남북한 경협을 교역, 위탁 가공, 투자 협력으로 대별하였는데 과거 남북한 경협은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정세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한 경협의 활성화 요인과 장애 요인을 대비시켜보았다.

경협의 활성화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김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국내 경기 활성화에 따른 대북 진출 확대 가능성, 지속적인 경수로 건설, 금강산 관광 개발 확대, 삼성의 전기·전자 제품 부문의 진출, 금강산 국제그룹의 평화자동차 공장 건설, 평양내 종합체육관 건설, 농업과 문화 부문의 상호 교류 급진전 등을 들 수 있다. 경협 장애 요인으로는 북한의 남한 품목의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 대북

지원에 대한 국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 등을 들 수 있다.

활성화 요인과 장애 요인을 대비해보면 2000년 남북한 경협의 활성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한은 1997년부터 시작된 IMF체제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북한도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적 붕괴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면서도 남북한 경협 규모가 꾸준히 증대되어 1999년에는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남북한간 경제적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될 2000년에 경협은 더욱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교역

경협 가운데 남북 교역은 가장 종속적인 분야이다. 남북 교역은 북한의 반출 자원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위탁 가공이나 투자 협력 등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좌우된다. 그

〈표 1〉 남북한 경협의 활성화와 장애 요인

구분		활성화 요인	장애 요인
남한	정치적 요인	· 서방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 북한과의 정상회담 제의	· 무력 도발과 군사용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경제적 요인	· 남북한 경제공동체 제의 ·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 국내 경기 활성화 · 지속적인 경수로 건설 · 금강산 관광 개발 등 확대	· 과당 경쟁이나 북한에 대한 무상 지원폭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 · 경제 불안 요인 상존
북한	정치적 요인	· 강성대국과 과학 기술 육성	· 남한 정부와의 공개 접촉 기피
	경제적 요인	· 북한 경제의 미미한 회복 · 남한 경험으로부터의 이익	· 극히 제한적인 대외 개방 정책 기조 유지

런데 위탁 가공이나 투자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남북 교역도 크게 증대될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 개발과 경수로 건설의 지속적 추진 등에 힘입어 교역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교역 성격에서도 크게 거래성과 비거래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 건이나 삼성의 전기·전자 품목의 진출,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 건설 등으로 거래성 규모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거래성 교역에서도 위탁 가공이나 투자 협력을 제외한 단순 물자 교역은 북한의 교역 대상 품목 부족과 외화난 등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출 품목도 당연히 기존의 섬유나 의류 등에서 전기·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품목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다.

위탁 가공

위탁 가공을 통한 남북한 경협도 이제는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RI의 경우 위탁 가공 형태로 대북 진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경협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내 일부 업체들도 동사의 성공 사례를 따르고 있으며 동사의 자문을 얻어 대북 진출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도 그동안 남한 업체와의 경협 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남한 기업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협력

현대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은 그간 몇 번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단순한 금강산 관광 개발 단계를 지나 이제는 온천과 각종 위락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라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대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 사업 추진과 경수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외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대북 투자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방침에 따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외국 기업체들이 북한에 진출할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한간 투자 협력은 대단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금년에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의 하나로 과학 기술을 선택할 정도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수사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정보 기술 산업의 추세에 더 이상 낙오되어서는 안된다

는 절박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과학 기술 육성 방침은 여러 방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남한의 기업들도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과학 기술 육성 방침에 부합되는 업종으로 진출한다면 훨씬 쉽고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실물 부문의 활성화에 부응한 금융 부문의 역할 기대

남북한 실물 부문의 경제 교류 협력은 크게 발전·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부문의 교류 협력을 지원해야 할 국내 금융 기관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통일전 구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서독 은행들은 청산계정을 이용한 대월제도, 중장기 연불 수출 금융의 공여와 구동독에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등 구 동서독간 원활한 실물 부문의 경험을 지원했다.

남북한 경험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나 고가 중장비의 대북한 반출에 대한 금융 기관에 의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내 금융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대북한 진출 기업들이 송금을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북한 은행들과 코레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금 결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산결제에 의한 대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남한 제품을 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월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반입 능력을 확대시키지 않는다면 남북한간 순수한 품목간 교류는 더이상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남한 은행들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이나 기타 자금을 일부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대북한 진출 국내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현대나 삼성 등의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 기관의 대북한 진출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북한 당국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물론, 북한측도 국내 은행을 통한 선진 금융 기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⁶⁾

단계별 유망 업종 가이드라인의 필요

대북 투자에서 현재 각 기업체가 나름대

5) 외환은행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신포지역에서 단순한 출장소 형태의 극히 제한적인 송금 등을 하는 것을 대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부문의 지원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6) 남북한 경험에 대한 국내 금융 기관의 역할에 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1999. 6), "국내 은행의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통일경제」, pp. 42~53 참조.

로 업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무리한 사업, 중복 투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야나 국책 연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 혹은 업체간 자율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및 군사·안보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남북 관계 개선이나 경협 활성화 및 품목의 다양화 등의 긍정적 측면을 도외시해서도 안될 것이므로, 경협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은 남북한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통일 한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만 너무 강조된 감이 있다. 북한이 남한의 주요 제품이나 기술과 자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함으로써 남한에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

내 업종의 대북한 진출시 우선 진출 가능 업종의 선정과 함께 진출 제한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별 작업을 통해 남북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에 의한 주요 산업의 불모화,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의 유출, 군사목적으로의 전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 집약도, 기술 수준, 투자 규모, 공사 기간 및 자금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업종별로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 전략 물자와 국책 연구 사업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업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⁷⁾

국내 기업의 단계별 대북한 진출 유망 업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국내 각 업종에 적용

〈표 2〉 우리 기업의 대북한 진출 업종 선정 기준

단계	경제적 측면					안보적 측면
	투자 위험도	노동 집약도	기술 수준	투자 규모	공사 기간	
단기 (시범적 투자 단계)	낮은 업종	높은 업종	단순 기술	소규모 (1,000만 달러 미만)	1년 이내	· 군용 전용 가능 부문 · 진출 금지 · 국책 연구 사업 부문 · 금지
중기 (당국자간 대화 단계)	중간 업종	중간 업종	부분기술집약	중규모 (1,000만~5,000만 달러)	1~2년	
장기 (투자 보장 단계)	높은 업종	낮은 업종	기술집약	대규모 (5,000만 달러 이상)	3년 이상	


한 결과 단기·중기·장기별로 각 주요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업종 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예시이며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 진출에 따라 향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 상세하고도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한 조사·연구는 물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북 경협 전문가 양성이 정부 내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여태까지 남북한 경협은 경제적 실리보다는 기업의 선점 전략과 홍보 또는 경쟁 심리에 의한 진출 전략 등이 결부되어 추진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란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 경협의 양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이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을 지니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투자 결정 전에 북한 산업 경제를 포함한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세심한 조사·연구의 병행은 물론, 진출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굳이 경영권에 집착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발생할 단독 진출이나 북한과의 합작 투자 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위탁 가공에 의한 진출이 경영상 큰 어려움없이 훨씬 수월하고도 수익을 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로 IMRI를 들 수 있다. 위탁 가공 단계를 거쳐 북한 당국과의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단독이나 합작 형태로 진출해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

기타

이밖에 경협의 활성화와 체계를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⁸⁾ 또한 남북한간 경협을 통하여 산업 경제 부문부터 용어의 이해와 통일을 위한 접근, 남한 기술진을 포함한 인력이 인천-남포항으로 입출국이 되도록 하는 대신 기존의 북경을 통한 여행 경비와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 등 입출국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거나 육로에 의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 시급하다. 

7) 대만의 경우, 對중국 투자 제한 부문으로 자국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책 연구 사업 등 정부 정책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철도, 도로, 항만, 비행장, 전철과 소각장 등 기초 건설 부문, 에틸렌과 나프타 등 석유화학 부문, 니트, 합성 피혁과 판유리 등이 대표적인 사업 부문이다.

8) 자세한 사항은 현대경제연구원(1999. 8), "남북 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 점검", 『통일경제』, pp. 10~38 참조.

〈표 3〉 단계별 대북 진출 유망 업종 가이드라인

구분	단기	중기	장기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
철강금속	비철금속(동, 니켈, 금, 은, 전기동, 연, 알루미늄 압출), 주물, 주철관, 철선, 철못, 철근 등	H형강, 봉강, 배관 자재(강관), 와이어 로프 등	특수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특수강
기계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팩트, 선반, 밀링머신, 드릴기, 시계	굴삭기, 건설용 크레인, 로우더, 도저, 프레스, 복사기	연삭기, NC선반, NC밀링머신, NC드릴기, CNC연삭기, 산업용로봇, 베어링, MRI 등	연삭기, NC기계(선반, 밀링머신, 드릴기), CNC연삭기
조선	어선, FRP선, 수리·해체조선	선박선체부	각종 선박 건조(화학 제품 운반선, 유조선, 가스 운반선 등), 선박 기자재(크랭크샤프트, 엔진, 프로펠러, 전기전자부 등), 항법장치	선박용 프로펠러, 항법장치
자동차	자동차용 시트, 자동차용 백미러, 자동차용 와이퍼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에어컨, 알루미늄 휠, 타이어, 피스톤	자동차 등 완성차, 트럭, 특장차, 자동차램프, 자동차 안전 유리, 브레이크시스템	트럭, 특장차
전기·전자	컬러 TV, 라디오 카세트,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 스피커, 1차전지, 콘덴서, 인쇄회로기판	음향 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퍼스널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소형 모터, 무선호출기, 모니터 등	VCR, 이동전화 단말기, 전선, 2차전지	
화학	합성세제, 의약품, 화장품, 도료, 농약	EP고무, 페놀, 가성소다, MMA, 화학비료 등	에틸렌, 프로필렌, LDPE, HDPE, 촉매 등	페놀
건자재	콘크리트 파일, PC관, 흙관, 레미콘, 아스콘, 타일, 석제품, 점토벽돌, 암면, 내화물, 합판, 위생도기	판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석고보드, 중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시멘트	
섬유	화섬직물, 면직물, 모직물, 마직물, 편물, 각종 의류, 신발	폴리에스터 섬유, 아크릴 섬유, 나일론 섬유, 면·모방적, 부직포, 염색가공	폴리프로필렌 섬유, 탄소 섬유, 극세 섬유, 산업용 고강력사, 인공 피혁 등	탄소 섬유, 산업용 고강력사
제지	종질지, 박엽지(담배용지, 식품포장지용), 골판지상자	신문용지, 백상지, 크라프트지, 라이너지, 골심지, 화장지, 박엽지(성서, 사전용) 기계필프	아트지, 백판지, 화학필프	
음식료품	육가공, 수산가공, 제빵, 장류, 두부류, 과즙 음료, 먹는 샘물 등	식용유지, 유가공, 제분, 제당, 서양 제과, 라면, 커피, 맥주 등	식품 첨가물	